

제1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 심사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은 기초예술정책연구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높이고 각종 우수 정책 제안을 수렴해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된 총 20편의 논문 중에서 응모 자격에 미달된 4건을 제외한 16건을 대상으로 5인의 심사위원이 1차적으로 서면심사 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만을 합산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차 심사에서는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로 결정된 5명의 논문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와 근거의 적합성, 연구 결과의 기여도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성취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문화예술 내 클라우드(소셜)펀딩의 활성화 방안-후원 고려자의 후원 확정 유도 방안을 중심으로>는 국내외의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한 점이,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 기부 유형으로서의 저작권기부>는 사회적으로 기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였으며, 특히 저작권을 기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재능기부의 실효성을 분석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예술촌 연구>, <국내 뮤지컬 제작사 유통 구조를 통해서 본 지역 공연예술시장 발전 방안 연구>, <삶 속의 숨은 예술 찾기>등 3편은 논문 주제에 대한 논리 전개나 연구방법은 좋았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대상을 수여할 만한 탁월한 논문은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논문집 발간에 대해서 책자형태 발간보다는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공모전은 젊은 연구자들의 문화예술분야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ARKO 추진사업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연구윤리관련 검증체계의 강화, 순수이론과 실용연구 부분을 분리하거나 자유공모와 지정과제 공모 등 공모 방식의 다양화, 시상논문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 더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예술분야의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30일

심사위원 : 김세준, 윤정국, 이용진, 임미선, 전수환 (가나다 순)